

58.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열어라 & 내 사랑을 받아라!

제발 나를 아프게 하지말아라.

2015.04.27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저는 몇시간동안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였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받을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저는 Christ for the Nations(열방을 위한 그리스도)가 부른 'All of Me(나의 모든것)'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주님은 저를 매우 가까이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클레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원해. 너는 붙잡고 있어. 너는 완전하게 나에게 넘겨주지 않았고 평화롭지 않아. 너는 여전히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해. 오, 제발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제발 나의 사랑을 막지 말아라. 제발 나를 신뢰해라.

(클레어)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당신은 신이고 나는 작은 먼지일 뿐이에요, 저의 거리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와 같은 거리감을 느꼈어요.

(예수님) 하지만 너는 나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너는 너의 눈이 나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어.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나의 생각, 나의 사랑, 나의 이해를 받아라. 나는 너를 찬양으로 데려오기위해 너를 창조하였는데 너가 나를 찬양할때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랑으로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나는 너의 친밀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 나는 너를 괴롭히는 바보같아 보이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나에게 말해주기를 바래. 너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큰 일들도. 나는 어떠한 망설임도, 자기몰두도 없이 너의 전체의 존재에 완전하게 열린 문을 원해. 보이지 않아? 너가 바보같은 작은 일들에도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나에게 상처를 줘. 너는 '오, 주님은 신이시고 이것들은 하찮은 일들이라 주님의 시간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그것들은 하찮은 일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너의 마음에 있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소중한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일부가 되고 싶어.

(클레어) 황소고집의 머리라도요?

(예수님) 그 머리도.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해.

(클레어) 오 주님, 이것은 이상해요. 저는 주님을 조건없이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제가 지어놓은 작은 벽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인간의 벽 같아요.. 저의 인간성과 주님의 신성함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요.. 아니면 적어도 그것이 저의 관점이거나요.

(예수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너가 즐길 수 있도록 쪽빛 날개를 번쩍이는 그 파란 모르포 나비를 너의 손목에 앉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너의 생각에 얼마나 깊게 관여하는지가 보이지 않아?

(클레어) 네, 보여요. 그리고 그 나비는 주님께서 저를 천국에 있는 저의 궁전으로 처음 데리고 가셨을 때 저를 놀라게 했던 나비에요. 저는 주님께서 그 폭포의 궁전을 얼마나 복잡하고 세심하게 만드실 수 있는지 그저 깨달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그 방을 통과하는 방대한 양의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없애신 것 까지요. 제가 완벽하게 마음을 열어 주님께 넘겨주지 못하고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저의 잘못인가요?

(예수님) 이것은 너의 잘못이고 두려움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에 한번 이야기하였듯이 천국에는 육신의 끌림같은 것이 없으니 거기에 빠질까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것은 그냥 불가능해. 그리고 만약 그런것이 보이면 악마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걸 너는 이미 알고 있어. 그것은 확실히 나에게서 온것이 아니며, 절대로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야. 너는 그것을 알고 있어. 그렇지?

(클레어) 네 주님, 저는 그것을 믿어요. 주님께 제가 완전히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저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또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 너는 여전히 너의 부족함과 결점에 갇혀있어. 그것들은 너에게 보기싫은 것들이고 나는 지금 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태워버리고 있어. 너가 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일때 나는 그것들이 흔적조차 남지 않을때까지 이 남아있는 결점들로부터 너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너는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찾지 못할 거야. 이것이 너가 너의 존재 전체를 나의 손에 맡기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야. 이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야. 나와 함께 협력해줄 수 있어? 그래줄 수 있어 클레어?

(클레어) 오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네, 저의 결점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영광만을 제 마음에 두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클레어) 그것이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내가 요청하는 거야. 나의 사랑에 완전하게 맡겨라. 이렇게하여 나는 너를 지구의 본성이 지배하는 너의 경향에서 완전하게 구원할 거야. 그것들은 태워져 수증기로 사라질 거야.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세상에는 사랑이 너무 적어서 위안 받기위해 원하는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해. 그들은 음식, 아름다움, 관계에서 즐거움을 느껴. 문제는 이러한 것들중 어느것도 내가 주어야 할 것을 전달할 수 없다는 거야.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주는 사랑을 너무도 왜곡하여서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지고 다른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아.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그 공허함을 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혼에게 최종적인 성취를 가져다줄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고 좌절감만을 쌓아.

그들은 꿈꿔오던 일들과 가지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정점에 도달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내면이 너무도 공허하다는 것을 느껴. 이것이 많은 부자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야. 그들은 그들의 생활방식에 묶여있고 나와 함께 자유롭게 날아갈 수 없어. 그들의 생활방식이 그들의 신이 되지만 절대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한 실패라고 느끼고 절망하는 지점에 도달할때까지 더 많은 오락을 찾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관계를 만들어. 그들은 생각해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때까지는 행복하게 되지 않을 거야.

내사랑아, 그래서 너와 나의 모든 신부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완전하게 넘겨주고, 완전하게 신뢰하고 나의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손에 너희들을 내려놓는 거야. 나는 너희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너희들을 부드럽게, 완전하게 사랑해. 그러니 나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곳을 위해 창조되었어. 이곳은 너희들의 목적지이고 너희들의 집이야. 나의 신실한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식처로 오거라.

이 안식에서 너희들은 완전함을 찾을 거야. 그래, 너희들은 평화를 찾을 것이고, 만족하고, 성취되어지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오거라. 만약 너희들이 진흙탕에서 놀았다면 나에게 오거라. 내가 너희들을 씻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줄 거야. 만약 너희들이 너희들의 육체로 뒹굴었어도.. 여전히 나에게 오거라. 나는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줄 거야. 만약 너희들이 이 지구의 재물들에 지치고, 사람들 사이의 성공에 묶여있다면 나에게 오거라. 나는 그 속박을 끊고 나와 함께 하늘로 날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풀어줄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관점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만약 너희들이 사랑으로 무너지고 거부당하였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마음은 우리 둘 모두에 대한 충분한 사랑이 있고, 나는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 사랑의 포도주로 가득 차서 넘칠 때까지 너희들의 모든 찢어지고 찢린 상처들에 연고를 바르고 치유할 거야.

알겠어? 나는 너희들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은퇴시키기 위해, 천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너희들의 삶에 의와 평화와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 왔어.

너희들의 순수한 어린시절을 너희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어. 나는 너희들이 구했던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희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빈곤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체로 나에게 오거라. 부유하게 살고, 최고급의 옷으로 입고, 내 안에 사는 삶의 아름다움에 눈을 떠라. 너희들의 무거운 죄들로 몸을 굽히지 말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의 겸손함으로 명예롭게 몸을 굽혀라. 이 모든 것들과 그 이상을 너에게 줄 거야.

나는 오직 너희들이 너희들의 더러운 옷을 내려놓기를 요청해. 깊은 회개로 너희들의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기위해 앞으로 나아오고, 나의 피로 구원을 받아라. 나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나의 손으로 손을 내밀고, 나의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곳이 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너희들에게 흘러들어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 물을 주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너희들의 안식과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찾는 곳이야.

그러니 나의 신부들아, 나와 이 친밀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과 영원을 위해 너희자신과 모든것을 부인하는 것말고는 너희들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나에게 오거라.